

「玉丹春傳」研究

— 「李娃傳」과의 對比

許 椿*

目 次

I. 序 論	3. 主 題
II. 本 論	4. 作家意識
1. 構 造	III. 結 論
2. 人 物	

I. 序 論

「李娃傳」은 「霍小玉傳」(蔣防), 「鶯鶯傳」(元稹)과 함께 唐代 傳奇 중 艷情類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人情의 機微를 잘 그렸고 作中人物의 성격이 뚜렷하며 묘사가 逼真하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받고 있다.

傳奇는 志怪와 用意에 큰 차이는 없으나 작가의 의식적 창작이라는 점, 현실적 상황 문제나 인간 사회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다룬다는 점, 도시를 배경으로 小市民型이 많이 등장한다는 점,題材의 怪奇함보다 애기의 構成과 展開를 통하여 재미를 발휘한다는 점, 의식적으로 어떤 일을 諷刺하거나 勸善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¹⁾ 즉 藝術性과 寫實性의 차이이니, 傳奇의 특성으로 (道聽塗說의) 創作性的 寫作, 傳奇의 內容, 文藝性的 描寫²⁾를 드는 것은 이를 말함이다. 班固는 小說을 가리켜 “街談巷語 道聽塗說者之所造”라 했는데 이 때의 “造”는 곧 虛構之意이니 創作性的 寫作이란 소설의 기본 요건이라 하겠다. 또 唐代 傳奇小說은 사회

* 人文大學 專任講師

1) 金學圭, 「中國文學概論」, 新雅社, 1977, pp. 422~423.

2) 孟孫, 「中國小說史」, 臺北, 傳記文學出版社, 1977, pp. 66~68.

현실을 인식하고 平民의 意識을 지닌 문인들의 所産이므로 자연히 사회생활에서 부딪치는 재문제를 題材로 하고 있다.

當時 傳奇 作家의 풍습은 작품을 一面 勢力家에 통하는 “溫卷”으로 삼았다. 그러나 초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傳奇 作家는 역시 처음부터 자기들의 立身出世의 연줄을 고려에 넣지 않고, 오히려 自己들 不遇 不出世의 文人들끼리 社會를 諷刺·批判하고자 하였다. 그러기에 傳奇 作品은 낮은 貴族社會보다 擡頭하는 平民의 편을 들고 있으며 現實의 批判精神이 健健하게 살아 있다고 하겠다.” “溫卷”은 史體나 詩筆·議論 등을 配合한 文體로서 中·晚唐 때 科擧에 응시하던 小說體의 啓事를 말한다.

「李娃傳」의 作者 白行簡(?~826)은 白居易의 實弟로 字는 知退요 下邳人이다. 貞元 末에 進士로 祕書省 校書郎을, 元和 中에는 左拾遺와 司門員外郎을 지낸 바 있는데 官祿이 微微한 寒士 출신이어서 이같이 대중의 호응을 받은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兩唐書에 白居易와 같이 傳이 있다. (「舊唐書」一六六, 「新唐書」一一九) 빈곤과 고독 속에서도 효성과 우애가 지극했는데, 상세한 것은 알 수 없으나, “白文公年譜”(白居易)와 “白香山詩集”의 “別舍弟後月夜”, “別行簡”, “寄行簡” 등의 시를 통해 그 면모를 짐작할 수 있다. 著書로 文集 20권이 있다 하나 佚失되어 전하지 않는다.⁴⁾

「李娃傳」이 「玉丹春傳」에 끼친 영향, 「李娃傳」을 모태로 한 劇本 「玉堂春」과 「春香傳」·「玉丹春傳」과의 깊은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된 바 있다.⁵⁾ 또 「玉丹春傳」이 「春香傳」의 模倣作이라 하며 구체적으로 律文體, 命名(夢龍—血龍), 御史 出道の 플롯을 들기도 하지만⁶⁾ 이 문제는 좀더 考究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太平廣記」의 국내 영향이 컸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⁷⁾ 「玉丹春傳」이 「太平廣記」所載 「李娃傳」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는지는 의문이며, 영향을 받았다면 該傳을 藍本으로 한 여러 작

3) 張基植, “傳記小說과 그 成長: 說話文學의 展開와 小說로서의 完成”, 「서울대論文集(人文·社會系)」9輯, 1959, pp. 214~215. passim.

4) cf. 上揭論文, p. 269.

鄭範鎮, “白行簡其人其小說: 李娃傳에서 玉丹春傳까지”, 「成大論文集(人文·社會系)」13輯, 1968, pp. 57~66.

5) 丁來東, “春香傳에 影響을 미친 中國의 作品들: 西廂記, 玉堂春 等”, 「大東文化研究」1輯, 成大, 1963.

丁範鎮: 前揭論文.

李在秀, 「韓國小說研究」, 養雲出版社, 1973.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一志社, 1976.

崔雲植, 「玉丹春傳」小考, 「國際大論文集(人文·社會系)」, 6輯, 1978. 等.

6)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精研社, 1959, p. 478.

7) 金鉉龍: 前揭書에서 이 점을 광범위하게 살피고 있다.

품 (「李亞仙花酒曲江池」(石君寶), 「打瓦罐」(高文秀), 「曲江池」(朱有燾), 「馬伶傳」中の「賽曲」(侯方域), 「李素蘭風月玉壺春雜劇」(武漢臣撰), 「繡襦記」(皮黃戲), 「繡襦記」(薛近兪), 「玉堂春落難逢夫」, 「玉堂春」等⁸⁾) 중 明代 話本小說인 「玉堂春落難逢夫」와 雜劇 「玉堂春」일 것이다.⁹⁾

두 작품은 그 시대적 相距와 상황의 차이로 해서 각기 그 양상을 달리 하고 있는데, 본고는 두 작품의 優劣이나 授受關係를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그 특성을 살피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따라서 比較라기보다 對比에 더 가까울 것이다. 그리고 각 작품의 특성을 밝히므로써 「玉丹春傳」이 「李娃傳」의 절대적 영향을 받아 產出된 것이라는 단순하고 印象的인 견해도 再檢해 보고자 한다. 또 「玉丹春傳」이 「春香傳」의 模倣作으로 새로운 주제를 들고 나오지 못하여 실패했다¹⁰⁾는데 대한 의문의 제기이며, 明代 話本小說 「玉堂春落難逢夫」와의 본격적 비교를 위한 선행 작업이기도 하다.

添言하면, 우리 민요에 「玉丹春謠」가 몇 수 전하고 있으나¹¹⁾ 그 내용은 「玉丹春傳」과 관계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점이다. 오히려 「淑英娘子傳」과 가까운 노래가 있는데 이 경우 玉丹春이라는 이름만 借用한 것이겠지만,¹²⁾ 이는 「玉丹春傳」이 널리 읽혔고 또 一般에게 매우 친숙했었다는 傍證이기도 하다.

「李娃傳」은 「太平廣記」所收分을, 「玉丹春傳」은 舊活字本(博文書館 刊)을 대본으로 하였다.¹³⁾

II. 本 論

가. 構 造

II-가-1: 서술의 편의를 위해 먼저 경계를 소개하겠다.

8) cf. 丁範鐵: 前揭論文, pp. 72~74.

9) 「玉丹春傳」과 「玉堂春落難逢夫」와의 상세한 비교는 後稿로 미룬다.(「金拱植教授華甲紀念論叢」 게재 예정)

10) 金起東, 「韓國小說發達史 中」, 高大民族文化研究所 編, 「韓國文化史大系 10」, 1967, p. 1144.

11) 任東權 編, 「韓國民謠集 I~III」, 集文堂, 1961~1975. 에는 13수의 「玉丹春謠」가 채록되어 있다.

12) 金一烈, 「古典小說의 民謠化: 淑英娘子傳과 玉丹春謠를 대상으로」, 「語文論叢」 16號, 慶北大, 1982, p. 57.

13) 李 昉 編, 「太平廣記」(卷四八四 雜傳記類 所收). (啓明文化社 影印, 1982.)

東國大 韓國學研究所 編, 「活字本 古典小說全集」 卷四, 亞細亞文化社, 1976. (1916. 博文書館 刊行本)

「李娃傳」: 名門의 公子가 倡妓에게 빠져 몰락하여 流離乞食하다가 그 倡妓의 도움으로 급제하고 마침내 둘이 혼인한다는 이야기다. 常州刺史 榮陽公이 知命에 본 아들이 弱冠에 應科次 長安에 갔다가 青樓街 平康에서 名妓 李娃에게 惑하여 大금을 써서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많은 재물을 탕진한다. 돈이 떨어지니 것을 안 李娃와 李娃가 계락을 꾸며 생을 따돌리니 生은 원통한 마음에 그만 심한 질병에 걸린다. 生이 죽을까 두려워진 客店 주인이 그를 葬儀社 人부들 틈에 버리니, 生은 목숨은 건졌으나 喪輿 선두에 서서 輓歌를 부르며 연명하는 처지가 된다. 삶의 쓰라림을 맛 본 그가 부르는 輓歌는 長安에서도 유명하게 되어 東西 葬儀社 輓歌 競演에서 사람들을 감동시킨다. 마침 入計했다가 이를 본 生의 부친은 가문을 더럽힌다고 馬鞭으로 아들을 무수히 치고 죽게 된 生을 버려둔 채 돌아가 버린다. 장의사 人부들이 그를 매장하려다가 숨이 붙어 있는 것을 알고 간호하나 상처가 심해 人부들마저 피해 버린다. 다 깨진 사발을 들고 乞食하며 돌아다니던 生은 어느 겨울 아침 우연히 李娃와 邂逅한다. 자기의 소행을 뉘우치고 돌봐 주는 李娃의 정성으로 生은 건강을 회복하고 登科하여 成都府 參軍이 된다. 李娃는 生의 길을 떠나려 했으나 生의 간청으로 劊門까지 배웅을 나가는데, 지난 사정을 알게 된 生의 부친은 둘을 혼인트록 한다. 李娃는 시부모 봉양을 잘 하며 집안을 정성껏 꾸려 나갔고, 시부모 喪을 당해서는 喪主로서의 도리를 다 하니 버섯과 제비를 통한 祥瑞가 나타났다. 李娃는 沂國夫人에 봉해지고 아들과 姻戚이 모두 융성하였다.

「玉丹春傳」: 벗에게 도움을 청하려 갔던 儒生이 冷待를 받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으나 妓女의 도움으로 급제하여 벗을 治罪하고 그 妓女를 부인으로 맞는다는 이야기다. 李血龍과 金眞喜는 世誼를 지키며 서로 돕기로 굳게 언약한다. 두 승상의 별세 후, 李血龍은 가세가 점점 蕩敗해져 평양감사가 된 金眞喜에게 도움을 청하러 갔다. 流離乞食으로 步行 五百里, 평양에 당도하였으나 通寄할 수가 없어 전전하다가 대동강 鍊光亭에 놀이 나온 金眞喜를 겨우 만나게 된다. 그러나 金眞喜는 뜻밖에도 李血龍을 狂人 취급하고 사공을 시켜 대동강 물에 던져 죽이라고 命한다. 이때 寔席에 있던 妓女 玉丹春이 李血龍의 비범함을 알아차리고 또 그를 불쌍히 여겨 사공을 매수하여 그를 구한다. 李血龍은 玉丹春과 佳緣을 맺고 그녀의 도움을 받으며 학업에 정진하여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翰林을 제수받는다. 玉丹春은 皇城에 있는 李血龍의 妻子와 老母까지 돌보는 등 헌신적 애정을 쏟는다. 이에 李血龍이 전후 사실을 전하계 아뢰니 平안도 암행어사로 나가라는 命을 받는다. 걸인 행색으로 玉丹春을 찾아 간 李血龍은 그녀의 마음을 시험하여 애정을 확인한 후 감사의 잔치에 나아가 옛일을 詰責한다. 놀란 감사는 大怒하여 李血龍과 玉丹春을 함께 죽이라는 兇명을 내린다. 죽음에 임박하여 出道한 李血龍은 金眞喜를 封庫罷職시켰다. 李血龍은 金眞喜의 목숨만은 살려 주려 했으나 金眞喜는 天罰을 받아 죽는다. 李血龍은 右議政이 되고 본 처 김씨는 貞烈夫人에, 玉丹春은 貞德夫人에 封해지니 威儀와 尊名이 천하에 빛났다.

이들 몇 단락으로 나누어 정리·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李娃傳」

1. 倡妓 李娃, 應科次 長安에 온 常州刺史 榮陽公의 아들을 만나 동거하다.
2. 재물을 탕진한 生은 李娃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병에 걸려 장의사에 버려지다.
3. 輓歌를 불러 생계를 잇던 生은 부친에게 발각되어 죽음에 이르렀으나 겨우 소생하여 걸식으

로 延命하다.

4. 걸식 중, 悔心한 李娃를 만나 그녀의 도움으로 학업에 邁進하다.
5. 생이 급제하매 李娃는 妓의 身分으로 六禮를 올리고 沂園夫人에 封해지다.

「玉丹春傳」

1. 妓女 玉丹春, 故友인 평양감사 金眞喜를 찾아 온 李血龍을 만나다.
2. 李血龍은 金眞喜의 냉대에 죽을 고비를 맞으나 玉丹春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을 건지다.
3. 玉丹春의 보살핌을 받으며 공부한 李血龍은 應科를 위해 헤어지다.
4. 급제하여 御史를 除授받은 李血龍이 玉丹春과 再逢하다.
5. 李血龍이 金眞喜를 治罪하고 玉丹春은 貞德夫人에 封해지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작품 다 기녀의 도움으로 立身한 선비의 이야기이고 기녀가 正夫人으로 封해지는 점에서 共通된다.

이들은 “相逢－離別－苦難－再會－榮華”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 주인공의 고행과 시련은, 오딧세우스(Odysseus)의 아들 텔리마쿠스(Telemachus)처럼, 한 인물이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치른 通過儀禮(rite of passage)요 入社意識(initiation)¹⁴⁾이니 사랑 또는 지위의 획득을 위한 代價라 하겠다. “相逢－離別－苦難－再會－榮華”라는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分離－和合”으로 요약할 수 있는 바, 이 “分離－和合”의 시퀀스(sequence)는 현대 소설, 예컨대 金東仁의 「배따라기」¹⁵⁾에도 이어지고 있다.

II-가-2; 「玉丹春傳」은 言語競合談 형식을 띠고 있다. 언어경합담은 특히 結末 反轉의 妙味로 독자의 흥미를 끄는데, 이러한 예로 「要路院夜話記」의 나와 京華巨族임을 뽐내는 客의 대화를 통한 優劣 關係의 역전을 들 수 있다.

객：我觀鄉之賸 怪底形體條
不知藝文辛 何怪眞書沼
내 의골나기름 보니
형상 가치기를 괴저히 향는도다
언문 활 줄을 아지 못하니
엇지 진서 못함미 고이향리오

14) cf. Eckert, C. W., "Initiatory Motifs in the Story of Telemachus", *Myth & Literature*, ed. by J. B. Vickery, Univ. of Nebraska Press, 1966.
Marcus, Mordecai, "What is an Initiation Story?", *Critical Approach to Fiction*, ed. by Shiv K. Kumar, Keith Mckean McGraw-Hill Company, N. Y., 1968.

15) 「배따라기」의 문학적 구조에 관해서는 윤영미, 「〈배따라기〉의 構造의 分析과 技法에 나타난文學性」, 「西江」11號, 西江大, 1981.을 참조 바람.

나: 我觀京之表 果然舉動我
 내 서울 거슬 보니
 과연 저동이 되도다.¹⁶⁾

언어경합담 형식을 바우징거 (H. Bausinger)는 4가지 도식으로 정리한 바 있는데, 그 기본형은

$$\frac{A}{B \times f} \rightarrow \frac{A^i \times f}{B^i} \rightarrow \frac{A^s}{B^i} \quad \left(\begin{array}{l} s: \text{superior} \\ i: \text{inferior} \\ f: \text{function} \end{array} \right)$$

이니 열등한 위치에 있던 인물이나 상황이 反轉을 통해 優位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玉丹春傳」은

$$\frac{\text{李血龍}}{\text{金眞喜} \times f} \rightarrow \frac{\text{李血龍}^i \times f}{\text{金眞喜}^s} \rightarrow \frac{\text{李血龍}^s}{\text{金眞喜}^i}$$

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때 둘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기능을 玉丹春이 하고 있는데, 이는 「玉丹春傳」이 「李娃傳」보다 훨씬 흥미를 끌 만한 구조를 지녔다는 것을 말한다. 또 「玉丹春傳」은 「李娃傳」보다 善惡의 대립이 克明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러함에도 「玉丹春傳」의 소설적 흥미가 덜한 것은 결말을 豫見케 하는 胎夢, 만남의 과정, 기약 있는 시련, 후반부의 타협 등 여러가지를 들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玉丹春 自身이 援助者(helper)¹⁸⁾로 등장하는 점을 들 수 있다. 援助者가 神力이 아니라는 현실성은 있으나 언어경합담으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李娃傳」에서 李娃가 화를 불러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의외의 반전으로 援助者로 나섬은 (悔心の 필연성이나 契機에 관한 구체적 상황 설명은 없지만) 이야기의 흥미있는 진행에 一助를 하는 것이다. 이는 「鶯鶯傳」, 「霍小玉傳」 등의 “始亂之 終棄之”¹⁹⁾함에 반발함도 있겠지만 李·牛의 당쟁

16) 朴斗世, 「要路院夜話記」(延大本)

金東旭 校注, 「短篇小說選」, 民衆書館, 1976. 所收. 上點, 띄어쓰기, 筆者.

17) Bausinger, Herman, "Bemerkungen zum Schwank und seinen Formentypen", *Fabula*, Berlin, 1967, I/1-3, p. 126.

18) 援助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해서는

朴恩實, "韓國 說話에서의 援助者 研究", 碩士學位論文, 梨大大學院, 1981.

許楮, "古小說의 人物 研究: 仲裁者를 中心으로", 博士學位論文, 延大大學院, 1986, pp. 94~131. 를 참조 바람.

19) 孟瑤, 前揭書, p. 69.

으로 인해 寒士로 빈곤히 지내야 했던 白行簡²⁰⁾의 처지에도 起因했을 것이다.

II-가-3: 「李娃傳」에는 태몽이 없고 「玉丹春傳」에는 두 인물의 태몽이 있다.

李血龍의 부친 李楨은 꿈에 “청룡이 오운(五雲)을 타고 여의주를 희롱하다가 난더업는 비호가 너다르니 비호를 쫓차 한슈(漢水)에 무러 너바리고 하늘노 올라감을 보고”(p. 471)²¹⁾ 나서 그 달부터 胎氣가 있었으며, 金眞喜의 부친 金楨은 “비호가 산을 너머 한슈를 건너려다가 통감호 청룡을 만나니 비호가 물에 싸짐을 보고 놀나 너다르니 남가일몽”(p. 471)이었다.

태몽 중의 靑龍은 李血龍이요 白虎는 金眞喜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 독자의 긴장은 풀리게 되며 小說의 흥미는 折減된다 하겠다. 그리고 태몽에 상응하는 神力이 나타나지 않는 점은 작품의 현실성을 보여 주는 것이다. 태몽은 우리 고소설의 文學的 慣習인데 조선조 후기에 오면 「林花鄭延」처럼 태몽이 나타나지 않는 작품이 나타난다.

「李娃傳」에 태몽이 없는 것은 이 작품이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기는 형식이고 斷片的인 逸話 소개임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은 우리의 漢文短篇²²⁾과 비교해 보면 더욱 확실해진다.

II-가-4: 玉丹春과 李血龍의 만남은 玉丹春의 知人之感에 의한 것이다. 玉丹春은 “넉짓 보리 비록 의복은 남누나 얼굴이 비범하대 불상이 생각하고”(p. 480) 李血龍을 죽음에서 구한다.

「南胤傳」, 「洞僊記」, 「玉樓夢」, 「王慶龍傳」, 「李進士傳」, 「林虎隱傳」, 「張景傳」 등 대부분의 稗史류 소설은 여성의 知人之感에 의해 사랑이 이루어지고 그 묘사나 과정 설명이 자못 자세하다. 한두 예를 들어 본다.

그 얼굴은 형산비옥을 작근듯 일쌍봉안에 일월정취 어리었스며²³⁾

(李進士傳: 鄭瓊貝가 본 李玉麟)

의복이 탐루하니(나?) 살이 옥 갖고 골격이 장터하야 효성쌍안에 정취 어리어 연연이 범인(凡人)이 안니여늘²⁴⁾

(林虎隱傳: 柳娘이 본 乞食 중의 林虎隱)

단산에 안즌 봉이요 수풀에 의지한 범이니 진실로 천호호절이요 만고영웅이라²⁵⁾

(林虎隱傳: 美愛가 宴席에서 본 林虎隱의 風貌)

20) 丁範鏞, 前掲論文, p. 57.

21) 띄어쓰기, 漢字註, 筆者. 이하 같음.

22) 李佑成·林煥澤 譯編, 「李朝漢文短篇集」上·中·下, 一湖閣, 1973~1978. 의 용어임.

23) 東國大 韓國學研究所 編, 前掲書, 卷七, p. 83.

24) 上掲書, p. 266.

25) 上掲書, p. 292.

그런데 玉丹春이 李血龍을 구하는 상황은 얼굴이 비범하다는 막연한 느낌 외에 불쌍히 생각한다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예컨대 “상공의 괴상을 잠깐 보은 후의 신혼(神魂)이 호탕”²⁶⁾한 다른 작품에 비해 玉丹春의 人情味를 아울러 나타내고 있다. 또 玉丹春은 李血龍이 비범한 인물이므로 그가 大成할 것을 예견하고 그를 뒷바라지하고 있으니 一面 기약 있는 시련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李娃가 生을 처음 만났을 때의 상황은 이와 다르다. 李娃는 生의 재물을 보고 그를 은연 중 유혹한다.

闔一扉 有娃方凭一雙靑衣立 妖姿要妙 絕代未有 生忽見之 不覺停驂久之 徘徊不能去 乃詐墜鞭于地 候其從者 勅取之 累賂于娃 娃回眸凝睇 情甚相慕 竟不敢措辭而去(p. 3985)

(달린 한 쪽 문 앞에 한 예쁜 여인이 하나에게 의지하고 서 있는데 그 자태는 절세의 미인이었다. 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타고 가던 말을 멈추고 서성이며 떠날 줄 몰랐다. 일부터 채찍을 떨어뜨리고 따라오던 하인이 집어 줄 때까지 몇 번이고 그 여인을 쳐다보았다. 여인도 눈을 돌려 바라보는 모습이 사모하고 있는 듯하였다. 그러나 감히 말을 붙여 보지도 못하고 떠나고야 말았다.²⁷⁾

남녀의 만남에서 남자가 주가 되어 한 미인을 보고 天人인가 하고 놀라 배회한다든지, 하인을 통해 정을 전하게 하는 것은 唐代 艷情類의 일반적 방식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느 겨울 아침 乞食에 나선 生의 처절한 모습을 보고는 李娃의 마음이 움직였던 것이다. 그 장면을 보자.

一旦大雪 生爲凍餒所驅 冒雪而出 乞食之聲甚苦 聞見者莫不憐惻 時雪方甚 人家外戶多不發 至安邑東門 循里垣 北轉第七八 有一門獨啓左扉 卽娃之第也 生不知之 遽連聲疾呼 饑凍之甚 音響悽切 所不忍聽 娃自閨中聞之 謂侍兒曰 此必生也 我辨其音矣 連步而出 見生枯瘠疥癩 殆非人狀 娃意惑焉 乃謂曰 豈非某郎也 生憤憑絕倒 口不能言 頷頤而已 娃前抱其頸 以繡襦擁而歸于西廂 失聲長慟 曰 令子一朝及此 我之罪也 絕而復蘇(p. 3989)

(큰 눈이 내리는 아침 生은 추위와 굶주림에 못이겨 눈을 무릅쓰고 밖으로 나왔다. 걸식의 소리가 너무도 애처로워 슬퍼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눈은 더 심하게 내리고 人家의 대문은 닫혀 있었다. 安邑의 東門에 이르러 담장을 따라 북쪽으로 돌아가니 7·8번째에 왼쪽 문이 열려 있는 집이 있었는데 곧 李娃의 집이었다. 生은 이를 모르고 연거푸 급히 부르짖었다. “배도 고프고 추워 죽겠소!” 목소리는 너무나도 처절하여 차마 들을 수 없었다. 李娃는 이 소리를 듣고 “틀림 없이 그 이 목소리야. 난 그 이 목소리를 분별해 낼 수 있어.” 하며 밖으로 나왔다. 李娃는 生의 야유했 대로 야유했 데다 부스럼투성이의 사람 같지도 않은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다. “서방님 아니세요?” 生은 분함에 못이겨 그 자리에 쓰러져 말도 잇지 못하고 고개만 들먹였다. 李娃는

26) 「九雲夢」, 完版本 上, 五三張, 서울대도서관장본. 狄鶯鴻이 楊少游를 처음 보고 받은 느낌.

27) 譯文은 丁範鎭 譯, 「唐代傳奇小說選」, 汎學圖書, 1975. 에 따르되 逐譯함.

生の 목을 안고 수 놓은 비단으로 감싸서 西廂으로 갔다. 그리고 흐느껴 울며 “당신이 하루 아침에 이 꼴이 된 것은 다 제 죄예요.!”하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李娃가 기절했다는 데에는 필연성이나 성격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지만 李娃의 悔心에 초점을 맞추려는 작자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남자에게 혹독한 시련을 주는 극단적 설정을 하고 있는 이 작품에서, 작자는 남녀가 맺어져 행복한 결말을 가져오는 원동력으로 사랑보다 인간 본연의 良心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도덕적 비판의식을 보여 주는 작자의 評語와도 一脉이 통한다.

嗟呼 倡蕩之姬 節行如是 雖古先烈女 不能踰也 焉得不爲之歎息哉(p. 3991)

(오호라! 한낱 기생으로 절행이 이같으니 비록 옛날의 열녀라 할지라도 이에 지나칠 수 없으리니 어찌 감탄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西宮의 담을 넘으려 했던 金進士나 雲英과는 (「雲英傳」) 다르니, 운명이나 사회 제도에 대한 도전이라고는 할 수 없다.

II-가-5: 두 작품 다 행복한 결말을 보인다.

「李娃傳」의 후반부에 기녀가 불행하게 된 선비를 도와 독서하게 하여 급제 시키고 그래서 好合하여 부부가 된다는 플롯은 우리의 「玉丹春傳」 구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믿어 의심이 없다²⁸⁾고 보고 있다. 그런데 기녀가 등장하는 다른 소설 역시 대개 행복한 결말을 보여 주고 있으며, 위의 플롯은 가령 기녀의 순정을 그린 「王慶龍傳」(一名: 「玉檀傳」 - 작자 미상의 한문 소설)과도 흡사하다. 「李娃傳」의 전반부는 「李春風傳」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李春風傳」은 남성의 僞善을 폭로하고 이를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는데, 妖妓 秋月를 李春風의 아내가 나서서 懲治하는 점은 순정형 기녀로 남아 있는 「玉丹春傳」보다 「李春風傳」이 後代의 所産임을 방증하는 한 예이다.

행복한 결말은 우리 意識의 한 특징으로서²⁹⁾ 영향을 단정할 만한 증거는 되지 못하며 그 국내적 溯源을 함께 살필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李娃傳」의 행복한 결말은 前述한 바 他作品의 결말에 대한 반발심과 작자의 처지에도 起因하는 것이다.

나. 人 物

고소설은 주로 중심 인물 (main-character)의 행동을 통해 주제를 나타내기 때문에 특히 이들의

28) 金鉉龍, 前掲書, p. 391.

29) 徐大錫, “古典小說의 〈幸福한 結末〉과 韓國人의 意識”, 「冠岳語文研究」3輯, 서울대, 1978. 여기서 「彩鳳別曲」과 「林慶業傳」을 대상으로 하여 이 점을 원한 기피의 사고로 해석하고 있다.

의식 변화 고찰과 성격 분석은 작품 評釋의 지름길이라 하겠다. 다만 고소설은 설화와 깊은 관련이 있어서 作中人物이 개성을 지닌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李娃傳」은 一枝花說話³⁰⁾를 모태로 하고 있고 「玉丹春傳」은 溫達說話, 武王說話, 쫓겨난 女人 發福說話 및 義妓說話³¹⁾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고소설이 설화에서 발전하여 產出된, 또는 적어도 영향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때 설화—특히 민담의 인물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민담에서의 등장 인물은 개별적으로 특징지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저 누구라도 좋은 인물인 듯한 인상을 준다. 이 점은 한스(Hans; 독일계), 이반(Ivan; 러시아계) 등의 命名에서도 잘 드러난다. 독일 민담의 예를 들면, 주인공은 “큰 한스(Groß Hans)”, “힘 센 한스(Starke Hans)”, “노름꾼 한스(Spiel Hans)”³²⁾와 같이 불리우고 심지어 다른 인물들은 “왕, 언니, 막내” 등과 같이 이름조차 주어지지 않는데 이 점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따라서 민담의 등장 인물은 個性(Personlichkeit)을 지니고 있지 않을 뿐더러 典型(Typus)도 아니며 다만 一般的 形象(Allgemeine Figur)일 뿐이다.³³⁾

염정류 소설에는 전형적인 才子佳人이 등장하는 것이 공통적인데, 두 작품에서는 才子佳人의 일반적인 애정행각과는 다른 상황이 나타난다. 그리고 제목에서도 알 수 있는 바, 남성이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니 “加以作者文筆高妙 寫得委宛動人 其中幾個主要人物的形像 刻劃得非常真實又生動”³⁴⁾이라는 말은 적극적이며 動的인 인물로 묘사되고 있는 女主人公에 합당한 서술이다. 또 여성이 능동적으로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점은 두 작품이 여성의식의 高揚이라는 시대 변화의 所産임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선택과 투자의 주체가 여성인 女性 優位의 小説은, 우리의 경우, 17C 이후에야 나타나는 後期小説의 양상이다.

唐代的 妓女를 중심으로 해서 妓女와 당시의 사회 상황을 살펴 보겠다.

妓女와의 기사는 우리도 이미 三國時代에 나타나는데³⁵⁾, 妓女가 소설에 등장하는 것은 남녀 교재를 통한 현실 비판, 보다 자유로운 연애를 希求한 남성의 의식, 여성의 意識 高揚, 士大夫와 常民 사이에 橋樑 역할을 할 수 있었던 妓女の 사회적 위치 등이 그 요인이라고 하겠다. 또 애정의 순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많은 妓女와 姬妾들을 등장시켰는데, 純情型 妓女の 경우는 이 점이 더욱 두드러진다.

30) 劉開榮, 「唐代小説研究」, “李娃傳是根據民間說話一枝花故事改寫而成”
丁範鎮, 前揭論文, p. 70. 再引.

31) 崔雲植, 前揭論文, p. 81.

32) cf. Grimms, *Die Kinder und Hausmärchen*, 金昌活 譯, 「獨逸民譚說話集」, 乙酉文化社, 1975.

33) 許椿, 前揭論文, p. 2.

34) 華正書局 編輯部, 「校訂本 中國文學發展史」, 臺北, 華正書局, 1977, p. 376.

35) 「東國輿地勝覽」卷二一, 慶州府 古跡條. 天官寺에 얽힌 金庚信과 天官女의 故事.

唐代 소설에는 두 종류의 특수 여성이 있으니 하나는倡妓요, 하나는姬妾이다. 이들이 소설의 悲劇性을 형성하는 것은, 하나는 그들의 신분에서 연유하고 하나는 혼인 제도에 기인한다.倡妓와 唐代 소설이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것은 唐代 文人, 특히 벼슬에 나아간 사람은倡妓를 데리고 놀았던 풍속에 연유한다. 進士(과거에 응시한 사람이 새로 급제한 경우)와 倡妓의 연애는 당시의 혼인 관념 때문에 필연적으로 悲劇을 일으킨다. 당시의 풍속이 「開元天寶遺事」에 잘 나타나 있다.

長安有平康坊 妓女所居之地 京都俠少 萃集於此 兼每年新進士以紅牋名紙遊謁其中 時人謂此坊爲風流薈澤³⁶⁾

이런 점을 들어 劉開榮은 “唐代文學史는 진사와 창기의 文學史다”³⁷⁾라고까지 하였다. 中唐 이후는 封建 守舊 세력이 다시 새롭게 대두되니 일반 상류 사회 婦女는 모두 禮教에 빠졌다. 그러므로 妓院은 자연히 남녀의 사교 장소가 되었고 관리와 妓女가 함께 어울려 노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또 당시의 妓女는 모두 수준이 높아서 그 流品을 分別함과 人物 됨됨이를 재는 것과 應付 排次에 보통 사람이 따르지 못하였다.³⁸⁾

唐代 艷情類에 妓女가 登場하는 작품이 많은 것은 경제적 상황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唐代는 상업이 발달하고 국내외적으로 交往이 빈번하여 경제적으로 好況을 누렸으며, 따라서 唐代의 妓女도 그 盛함이 最高潮에 이르러 富商·文人들과 교류하고 長安에는 妓院이 林立하니 이러한 사회 상황은 연애 고사가 나오기에 아주 적당한 환경이었다. 또 則天武后 이래 女權 伸張의 영향도 간접적이거나 작용했을 것이며, 봉건 체제에서도 일종의 자유 연애를 구가하고자 한 기녀의 정신에도 기인한다.

唐代的愛情小說 多寫妓女才人的悲歡離合的故事 這是有其社會原因的 唐代商業發達 國內國際的貿易交往頻繁 長安揚州諸地 更爲繁盛 在這種交通便利經濟發達都市繁榮的狀況下 唐代妓女 盛極一時 有的重利 有的愛才 重利的與富商逢迎 愛才的與文人往來 …… 這種社會 正是產生妓女才人戀愛故事的好環境 這些作品的內容 並不完全出於文人的想像 是具有現實生活的基礎的³⁹⁾

…… 由於貨物的流暢 一般人民的物質生活都十分享受 …… 當時的長安便妓院林立⁴⁰⁾

36) 「開元天寶遺事」風流薈澤條.

馮明惠, “唐傳奇中愛情故事之剖析”, 煙弦·廖玉蕙 編, 「中國古典小說論集」第一輯, 臺北, 幼獅文化公司其刊部, 1977, p. 132. 再引.

37) 劉開榮, 前揭書, “所以 唐代的文學史 就名之爲進士與娼妓的文學史 亦不爲過”

馮明惠, 上揭論文, p. 133. 再引.

38) 馮明惠, 上揭論文, pp. 130~133. passim.

39) 華正書局 編輯部, 前揭書, p. 377~378.

40) 孟瑤, 前揭書, p. 64.

唐詩最盛 妓中能詩者尤極多 …… 我以為娼妓的思想與精神是 自由的 解放的 流動的 ……⁴¹⁾

唐代的 妓女는 官妓, 家妓, 官妓, 民妓로 나눌 수 있는데⁴²⁾ 이들은 자유분방한 기질로 상층 사회에 접근했다. 당시의 관리들은 長安에 있는 北里, 平康, 教坊 등의 妓館을 중심으로 풍류를 생활화했다. 平康은 생이 李娃와 만난 青樓街이다.

家妓는 權門世家的 養妾으로서 步飛煙(「步飛煙傳」), 紅拂妓(「虬髯客傳」), 紅綃妓(「崑崙奴」) 등이 다 이에 속하는데 이들은 주인 재산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므로 家妓는 禮敎와 인습에 항거하고 애정 이외의 것도 추구하며 貧富 貴賤의 한계를 타파하려는 담대한 의식이 있었다. 이처럼 唐代 傳奇는 民妓(私妓)가 등장하는 작품이 艷情類의 主流를 이룬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妓女는 거의 官妓였고 따라서 王公貴族의 家妓(官妓)와 조선조 후기의 私妓는 극히 일부 작품에만 나타난다. (「雲英傳」, 「芙蓉傳」, 「李春風傳」 등.)

이러한 차이는 작품의 주제와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데, 중심 인물이 私妓일 경우는 애정 성취의 장애물이 재물이나 인간성인데 비해 官妓일 경우에는 官權(을 천 官長)이 되기 때문이다.

운명을 적극적으로 개척해 나간 玉丹春을 開拓型⁴³⁾, 指導型⁴⁴⁾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는 李娃에도 꼭 맞는 말이라 하겠다. 또 玉丹春이 苦難을 能動으로 發할 줄 아는 北方的 氣質이라 하여 春香의 南方的 氣質과 대비하기도 한다.⁴⁵⁾ 그런데 春香은 守廳을 거절하므로써 모진 매를 맞고 죽음에 직면하였고, 玉丹春은 李血龍을 살려줬다는 것으로 해서 李血龍과 같이 水獐 위기를 맞는다. 玉丹春은 金眞喜와의 직접적 갈등은 겪지 않으므로 春香에 비해 고난의 정도가 훨씬 약하다. 그러므로 玉丹春이 고난을 능동으로 發한 여성이라는 평가는 비약적이라 하겠다.

중심 인물의 행동을 뒷받침하고 주제의 선명한 부각과 이야기의 흥미있는 전개를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보조적 역할을 하는 周邊의 人物(minor character, sub-character)이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 정도에 따라 중심 인물의 성격이나 작품의 주제는 좀더 확실해진다.

「李娃傳」에는 가문을 자식의 목숨보다 증시하는 관료적인 부친 榮陽公, 실리적이면서도 냉혹한 妓姥, 생을 불쌍히 여겨 간호하고 밥을 먹여 살려 주는 장의사 인부들이 助役을 맡고 있는데 이들의 성격이 비교적 뚜렷하다. 「李娃傳」이 “예술적으로 가치가 높다”⁴⁶⁾든지 “잘 짜여져 있어

41)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 臺北, 商務印書館, 1967, p. 98.

42) 近藤春雄, 「唐代小説の研究」, 東京, 笠岡書院, 1978, p. 51. 官妓, 家妓, 私妓로 나누기도 함(許世旭, 「中國古代文學史」, 法文社, 1986, p. 411.)

43) 趙憲, “古代小説 속의 女人型”, 「文湖」 創刊號, 建大, 1960, p. 117.

44) 朴敏一, “古代小説에 나타난 女人像攷”, 「語文論集」 13輯, 高大, 1973, p. 104.

45) 蘇在英, 「古小説通論」, 二友出版社, 1983, p. 249.

46) 胡雲翼 著, 張基樞 譯, 「中國文學史」, 大韓敎科書株式會社, 1972, p. 207.

불 만하다”⁴⁷⁾고 높이 평가 받는 것은 이러한 주변적 인물들의 뚜렷한 성격에도 큰 이유가 있을 것이다.

「玉丹春傳」에는 監司의 명에 따라 李血龍을 물에 버리려다 玉丹春의 간청으로 그를 살려 준 사공, 李血龍의 母親과 妻가 등장하는데, 이들은 「春香傳」의 房子 같은 生動感이 없어서 작품의 活力素가 되지 못하고 있다.

다. 主 題

주제 연구는 작품 성격과 본질을 이해하고 가치 평가를 하는 작업이다. 주제의 파악에는 대체로 작품의 형성 과정, 작중 인물, 갈등 구조를 통한 방법이 유용하다. 그런데 작품의 형성 과정이나 작가의 창작 과정이 再構되기 힘든 고소설에서는 작중 인물의 말이나 행동, 사상을 통한 방법이 특히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중심적 갈등(main conflict)의 양상을 파악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⁴⁸⁾

「李娃傳」의 주제를 자유 결혼, 계급 타파, 女權 伸張으로 보고, 청춘 남녀 교제의 자유화, 여성 지위의 提高, 작품의 서민성, 文筆의 樞工 등에서 작품의 가치 내지는 장점을 찾고 있는데⁴⁹⁾ 이러한 견해는 論者들이 동의하는 점이기도 하다. 가령 「任氏傳」(沈既濟), 「霍小玉傳」(蔣防) 같은 長安 선비와 妓女 사이의 애정을 그린 다른 작품도 있는데, 각 작품의 側面인물적인 해석은 다른 것이 못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서 주제를 再檢해 보고자 한다.

「李娃傳」을 작중 인물의 행동을 통해 살펴 보자. 처음엔 돈을 바라고 生을 은연 중 유혹하여 재물을 탕진케 한 뒤 竹林神에 祈子하려 간다고 속여 生을 따돌린 倡妓 李娃는, 乞食하는 生을 보고는 悔心하여 妓姥에게 그 동안 들어 간 자신의 양육비를 갚고 生을 뒷바라지한다. 그리고 건 강을 회복한 生이 과거에 응시한다는 것을 더 공부하라고 말할 뿐 아니라 生이 秀士가 된 뒤에도 그를 더욱 격려하여 마침내 直言極諫科에서 首席를 차지하여 參軍이 되게 한다. 그러고는 任地로 떠나는 生에게 좋은 가문의 규수와 혼인하여 선조의 재사를 받들도록 하라며 헤어질 것을 제안한다. 장황한 감이 있지만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 보자.

給姥之餘有百金 北隅五家 稅一陳院 乃與生沐浴 易其衣服 爲湯粥通其屬 次以酥乳潤其臍 旬餘 方膚水陸之饌 頭巾履屨 皆取珍異者衣之 未數月 肌膚稍腴 卒歲 平愈如初 異時 娃謂生曰 體已康矣 志

47) 魯迅 著, 丁來東·丁範鎮 共譯, 「中國小說史略」, 錦文社, 1964, p. 100. “李娃事又近情而變所 故纏綿可觀”

48) 鄭夏英, “「沈既濟」의 主題考”, 李相澤·成賢慶 編,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社, 1983, pp. 460~461. passim.

49) 丁範鎮, 前揭論文, p. 72.

已壯矣 淵思寂慮 默想曩昔之藝業 可溫習乎 生思之曰 十得二三耳 娃命車出遊 生騎而從 至旗亭南 偏門鬻墳典之肆 令生揀而市之 計費百金 盡載以歸 因令生斥棄百慮以志學 俾夜作晝 孜孜吃吃 娃常 偶坐 宵分乃寐 伺其疲倦 卽諭之綴詩賦 二歲而業大就 海內文籍 莫不該覽 生謂娃曰 可策名試藝矣 娃曰 未也 …… 今秀士苟獲擢一科第 則自謂可以取中朝之顯職 擅天下之美名 子行穢跡鄙 不侔于他 士 當藝泮利器 以求再捷 方可以進衡多士 爭霸群英 生由是益自動苦 聲價彌著 其年遇大比 詔徵四 方之雋 生應直言極諫科 名第一 授成都府參軍 三事以降 皆其友也 將之官 娃謂生曰 今之復子本 軀 某不相負也 願以殘年 歸養老姥 君當結綏鼎族 以奉蒸嘗 中外婚媾 無自躡也 勉思自愛 某從此去 矣 生泣曰 子若棄我 當自到以就死 娃固辭不從 生動請彌懇 娃曰 送子涉江 至于劍門 當令我回 生許 諾. (p. 3990)

(媼에게 양육비를 갖고 나니 百금이 남았다. 그것으로 집 한 칸을 빌렸다. 그리고는 목욕시 키고 옷을 갈아 입고 탕족으로 위장을 원활하게 한 다음 양분 있는 음식으로 장을 툐툐하게 하여 山海의 음식을 다 먹었다. 모자, 신발도 진기한 것을 구해 주었다. 일년만에 생은 본래의 모습을 되찾았다. 어느날 이와는 "이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셨으니 옛날의 학업을 더듬어 보세 요. 얼마나 기억하시고 계시는지요?" 하니 생은 "2·3할밖에 모르겠소." 하였다. 해서 李娃는 남 쪽의 어느 冊店에 이르러 생에게 책을 골라 사게 하여 百金어치의 책을 사서 싣고 왔다. 그리고 생이 모든 잡념을 버리고 학문에만 뜻을 두어 밤낮 없이 열심히 공부하게 했으며 자기는 언제나 한쪽 구석에 앉았다가 밤이 깊어서야 잠들곤 했다. 또 그가 피곤해 보이면 시나 賦를 지어 보라 고 했다. 이년이 지나니 세상의 문적을 정독하지 않은 것이 없는 정도였다. 생이 "이젠 應科할 수 있소." 하니 李娃는 "아직 안돼요. 좀더 빈틈없이 준비하셔야 해요." 하고 말했다. 다시 일년이 지나서야 "이젠 가서 시험을 쳐 보세요." 하였다. 생은 수석으로 급제하여 명성이 수험장을 뒤흔 들었으며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아직 안돼요. 오늘날의 秀士는 겨우 한 번 급제하여 곧 조정의 높은 직위를 취하여 명예를 떨칠 듯한 기분을 갖지만 당신은 행적이 더럽혀 져 있으므로 다른 사람과 동등할 수 없어요. 다음 시험에도 급제해야만 비로소 수재들과 羈縻을 다룰 수 있어요." 하는 李娃의 말을 듣고 생은 더욱 열심히 공부하였다. 그 해 마침 과거가 열리 니 수재들이 모인 자리에서 생은 直言極諫科에 응시하여 수석을 차지하고 成都府의 參軍에 임명 되었다. 임지로 떠나려는 생에게 李娃가 "이제 당신을 본래대로 해 놓았으니 당신을 타락하게 했 던 저의 책임은 없는 셈이니 남은 삶은 돌아가 어머니(老姥)를 모시고 보내려고 해요. 당신은 훌륭한 가문의 규수와 혼인하여 선조의 제사를 받들도록 하세요. 혼인이란 낮은 상대를 택함으로 써 스스로를 욕되게 해서는 안되는 법이에요. 저는 여기서 떠나겠어요." 하고 말하니 생은 울면 서 "그대가 날 버린다면 자살하고 말겠소." 하며 따라가지 않으려는 李娃에게 간절하게 청했다. 이에 李娃는 "그러면 강 건너까지만 배웅해 드릴테니 劍門에 이르면 저는 돌아오게 해 주세요." 하므로 그러기로 했다.)

돈이 떨어진 생을 멀리 하였던 (歲餘 資財僕馬蕩然 邇來姥意漸怠 娃情彌篤) 李娃가 悔心하는 계기 에 필연성이 없어 이야기 전개에 있어 설득력은 부족하지만 이 점은 주재와도 연관이 있다. 여하 든 위에서 본 것처럼 여성이 매우 능동적으로 남성을 조종하고 있다. 唐代 여성의 감정 표현은 관념적 전통 여성 보다 훨씬 대담하고 솔직하며, 소설에서는 紅拂妓(「虬髯客傳」(杜光庭))처럼 주동

적 위치에 있는 여성이 더러 나타난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처하는, “掃雪”이나 “朝報”⁵⁰⁾에서와 같은 女性型은 우리의 경우 조선조 후기에야 보인다.

李娃의 행동을 통해서 보면, 재물만을 좇았던 獐惡한 妓女가 뒤에 悔心하여 인간 본성에 따른 본연적 행동을 하는 데에 작품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점은 앞에 제시한 李娃와 生의 再逢 장면을 상기하면 더욱 확실해진다. 唐代 傳奇類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인도주의 정신과 낙관적이고 적극적인 정서를 표출하며 관료 제도와 잘못 된 禮教를 풍자하는 점⁵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특히 「李娃傳」은 인도주의 정신이 두드러지게 표출된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또 「李娃傳」의 중심 갈등을 살펴보면, 애정 성취를 막는 장애물은 계급이나 官權이 아니고 재물이나 李娃나 妓姥의 邪惡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보면 「李娃傳」의 주제는 인도주의 정신에 바탕을 둔 인간성 회복에 있다고 하겠다. 이어서 검토하겠지만 該傳의 주제를 자유 결혼, 계급 타파, 여권 신장이라고 보는 것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鶯鶯傳」, 「霍小玉傳」 등에서 보듯이 부모의 반대로 말미암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 바로 唐代의 일반적인 사회 조류였고 보면 이같은 작자의 暴言은 과연 그 당시에 일종의 공인된 사회 제도에 대한 반발이요 혁명이었다고 하면서, 남녀 사이는 부모라도 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妓姥의 말을 들어 자유 결혼과 남녀 교제의 자유화를 주제의 하나로 들고 있기도 하다.⁵²⁾ 그런데 위의 例言은 生의 재물을 노리고 生과 李娃와의 결합을 원했던 妓姥가 한 말이어서 과히 적절한 예가 되지 못한다고 하겠다.

生曰 今之來 非直求居而已 願償平生之志 但未知命也若何 言未終 姥至 詢其故 具以故 姥笑曰 男女之際 大欲存焉 情苟相得 雖父母之命 不能制也 女子固陋 曷足以薦君子之枕席 (p. 3986)

(生이 말하길 “오늘 내가 여기온 것은 다만 방을 얻고자 함만은 아니요, 평생 소원을 풀고자 함인데 허락해 줄지 모르겠소.”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妓姥가 웃으며 말했다. “남녀 사이엔 大欲이 있어서 애정이 서로 통하게 되면 부모의 명이라도 이를 억제할 수 없지요. 그러나 저의 집에는 못난 것인데 어떻게 군자의 잠자리에 드릴 수 있겠어요?”)

唐代의 혼인 관념이 어떠한가는 名門家(五姓女)와 혼인하지 못한 것을 평생의 세가지 恨 중의 하나로 든 薛元超의 말을 통해서 그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⁵³⁾ 五大 名門家是 隴西 李氏, 太原 王

50) 李佑成·林煥澤 譯編, 前揭書, 上卷. 여기에서 불인 제목을 그대로 썼음.

51) 楊家駱 編, 「中國學術類編」中 馮夢龍 撰, 「警世通言」, “前言,” 臺北, 鼎文書局, 1977, p. 5.

52) 丁範鏞, 前揭論文, p. 72.
馮明惠, 前揭論文, p. 123.

53) “劉餗隋唐嘉話中記載薛元超的一段話 最足以說明 薛中書元超謂所親曰 吾不才富貴過份 然平生有三恨 始不以進士擢第 娶五姓女 不得修國史 云云”
馮明惠, 上揭論文, p. 134. 再引.

氏, 榮陽 鄭氏, 苑陽 盧氏, 博陵·清河 崔氏로, 이들과의 혼인을 이상으로 삼았음은 「柳毅傳」, 「鶯鶯傳」, 「霍小玉傳」 등 여러 소설에서 나타나고 있다. 「李娃傳」도, 작자는 “畧其名氏 不書”라 하였으나, “時望甚崇 家徒甚殷”이라 한 것을 보아 생이 榮陽 鄭氏임을 짐작할 수 있겠다. 당시의 청년들은 進士가 되어 五姓女를 娶妻하는 것이 兩大目標였다. 이러한 婚姻觀은 晚唐에 와서 변화를 보이지만 唐代의 一般 賤民과 士族은 혼인을 논할 수 없었으며 이를 어기면 법률의 제재를 받았다.⁵⁴⁾

이런 점을 감안해 볼 때 이 작품은 혼인을 통한 계급 타파와 남녀 교제의 자유화라는 의의가 크다고 하겠으나 이것이 곧 주제는 아니다. 前後始末을 들은 榮陽公은 劍門에 별관을 지어 거기에 李娃를 머무르게 한 후 중매인을 내세워 들을 정식으로 혼인토록 한다. 즉, 該傳이 부모의 명을 거역하고 남녀가 교제하는 것을 主唱한 작품이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계급 타파라는 점에서도 該傳이 널리 읽혔을 것이나, 白行簡이 창작한 의도는 李娃의 節行에 있다. 작품 말미에 立傳 동기를 기록하고 있으니, “여성들의 정절을 지키는 태도에 관해 서로 이야기하다가 汧國夫人의 이야기를 했더니 李公佐가 감탄하고 경청하더니 나에게 그 傳을 지으라고 했다(貞元中 予與隴西公佐 話婦人操烈之品格 因述遠汧國之事 公佐拊掌竦聽 命予爲傳)”는 것이다. 唐代 艷情類는 한미한 지위의 여자가 남자와 동등한 지위를 점하는 것(즉 身分上昇)이 많은데 그 지위는 왕왕 영웅이 나타나 대신 取해 준다.⁵⁵⁾ 그러나 「李娃傳」에서는 신분 상승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생을 급제시킨 후 名門의 규수와 혼인하라며 완강히 생의 절을 떠나려 한 李娃의 행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신분 차이로 인한 비극성을 唐代 艷情類의 중요한 특징으로 꼽는데 「李娃傳」은 조금 성격을 달리 하는 작품이다. 즉 자유 결혼, 계급 타파, 여권 신장 등은 작품 형성의 動因이고 부수적인 것이지 이런 점들을 작품의 주제라고 함은 바른 시각이 아니라는 것이다.

玉丹春의 행동도 매우 현신적이지만 「玉丹春傳」은 玉丹春의 美化나 찬양보다 李血龍과 金眞喜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友誼를 저버린 金眞喜가 천벌을 받도록 한 작품의 結構를 통해서도 이를 알 수 있는데 고소설의 작중 인물은 “當時人的 모랄의 표상”⁵⁶⁾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玉丹春傳」의 중심 갈등은 李血龍과 金眞喜 사이에 있으며, 玉丹春과 金眞喜와는 직접적 마찰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玉丹春이 死境에 이르는 것은, 李血龍을 죽이라는 자기의 命을 玉丹春이 나서서 사공을 매수하여 막았음을 안 監司가 李血龍과 같이 水葬을 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모에 정면으로 항거한 春香에 비해 절박감이 덜하다.

54) 馮明惠, 上揭論文, pp. 136~137. passim.

55) 劉紹銘 作, 余素 譯, “唐人小說中的愛情與友情”, 煙弦·廖玉蕙 編, 前揭書, p. 99.

56) 金東旭, “韓國文學의 基底”, 「東方學志」10輯, 延大, 1969, p. 135.

李血龍은 출도한 후 金眞喜를 治罪함에도 인정을 앞세우며, 작자는 그 應報를 하늘에 맡긴다.

어스도 어진 마음 다시 생각하고 하는 말이 네(彼)는 네 죄로 죽을망정 선의(先證)를 생각하고
넷정을 생각하니 너 또한 저와 같이 죽일 수 차마 없다 하고 나줄 한 놈 급히 불너 분부하고
네 급히 밖에 가서 그 양반 물에 한참 너었다가 괴(幾)의 죽게 되거들랑 도로 전져 실고 오라
하니 나줄놈 청령(聽令) 후 급히 갈 데 난터업는 뇌성벽역이 더작(大作)하며 진회를 잡아 너여
천벌 일성(一聲)에 시신(屍身)도 업서것더라(p. 507)

李血龍과 金眞喜의 갈등에 玉丹春은 援助者로 등장한다. 玉丹春은 知人之鑑과 아울러 故友에
게 죽게 된 李血龍에 연민의 정을 느껴 그를 구한다. 이로 보면 「玉丹春傳」도 妓女の 純節보다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사람은 결국 천벌을 받고 망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인간성의 회복(구체격으
로는 友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玉丹春傳」은 문제될 만한 새로운 주제를 들고 나오지
못하여 성공하지 못하였다⁵⁷⁾기보다 인간의 도리(友誼)를 말하려 한 작품에 玉丹春의 純情이 逸話
처럼 삽입되어 작품의 초점이 흐려진 데다, 前述한 여러 기술적인 면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했을
따름이다. 또 玉丹春과 春香은 같은 官妓이며 애정성취의 장애물이 官權이라는 점에서 공통되나,
春香은 사모와의 정면 대결로 독자를 淨化하지만 옥단춘은 사모와의 직접적 갈등이 없는 것도 한
원인이다. 「玉丹春傳」은 오히려 「李血龍傳」에 가깝다고 하겠다. 玉丹春은 민요에도 전하고 山臺
都監 脚本에도 云謂되었으며 玉丹春의 生地에 관한 전설도 있다.⁵⁸⁾ 이로 볼 때 「玉丹春傳」이 널
리 읽혔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 「玉丹春傳」은 「春香傳」과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즉, 두 작품은 창작 의도와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이다. 模倣, 影響
그리고 類似性은 항상 얽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玉丹春傳」을 「春香傳」의 모방작이라고 단정함
은 너무 성급한 결론이라 하겠다.

라. 作家意識

끝으로 작가 의식을 간단히 살펴 보며 아울러 주제도 재점검해 보겠다.

「李娃傳」의 작자 白行簡이 李·牛 黨爭의 혼란기인 中唐 시기의 寒士였음은 앞에서 소개하였다.
該傳이 一枝花 說話 내지 이에 가까운 실화를 바탕으로 이룩된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작가 의식을 살필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작품 말미의 評語에 보이는 도덕적 비판 의식에 유의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乞인이 된 生을 본 李娃가 “命子一朝及此 我之罪也” 하며 絶而復蘇하도
록 한 것을 보면 白行簡은 이 이야기를 단순히 ‘記錄’하려 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7) 金起東, 前掲論文, p. 1144.

58) cf. 金台俊, 「增補 朝鮮小說史」, 學藝社, 1939, pp. 223~224.

또 남녀 사이의 大欲은 부모의 命으로도 억제할 수 없다는 妓姥의 말이나, 제락을 써서 生을 내쫓은 것은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일이며 하늘을 속이고 사람을 배반한 것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는 것이라는 李娃의 말(且互設詭計 捨而逐之 殆非人行 … 況歎天負人 鬼神不祐 無自貽其殃也)을 통해 間接的이나마 인간성을 긍정하고 逆天者는 必亡한다는 작자의 믿음을 알겠다. 결말을 통해서 “中外婚媾 無自贖也”라며 혼인에 있어 신분과 가문을 중요시 했던 當時의 因習에 반기를 든 작자의 의식도 엿보인다. 이 작품의 창작 동기는 李娃라는 偏妓의 節行이라 하겠는데, 극진한 보살핌으로 목표를 이룬 후에 아무런 미련 없이 생과 헤어지려 했던, 贖罪 이상의 높은 인간성을 주제로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 靑樓街나 葬儀社의 生態를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데서는 작자의 庶民性도 알겠다.

우리의 고소설은 객관적이고 第三者의인 觀點을 견지하는 것보다 작가가 한쪽 편에 서서 敘述者로 개입하여 文面에 표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판소리계 소설에서 두드러지지만 여타 소설에서도 非一非再하다.⁵⁹⁾ 「玉丹春傳」에서도 그러한데 한두 예를 들어 보겠다.

(金眞喜가 妓生點考할 때) 순수도(巡使道) 거동 보소 가지키 안친 후에 괴롱슈작(譏弄酬酌) 본티업다(p. 474. 上點 筆者. 이하 같음.)

(大同江 鍊光亭 잔치 자리에 찾아가 金眞喜를 만난 李血龍이) 평양감사 김진희야 리혈룡을 모로는나 두세 번 니(吾) 소리에 감스 듯고 혼츰 보다가……(p. 479)

(監司의 명으로 죽게 된 李血龍이) 니 팔즈 무슴 일노 갈소록 이리흔고 방성통곡 슬피 우니 니 아니 슬허하리요 산천초목이 다 슬허하더라(p. 481)

이처럼 작자는 어떤 인물에 대한 豫斷을 하고 있으며 善惡이라는 二元的 논리를 보인다. 玉丹春을 처음 소개할 때부터

그 중에 육단춘이라는 기성은 제 비록 기성은 힘실이 송죽(松竹) 文고 본심이 정결하야 내려오는 등너(等內)마다 슈칭들은 혼들 령을 불청하고 글공부만 심세 하야 세월을 보너면서 기성에 락인 몸이라 청구(点考)를 마칠망정 힘실이야 변홀손야 (p. 474)

하여 管周鮮, 金仙月, 玉門, 鸚鵡 같이 “모양 티도 곱게 꾸며 옷 모양과 거름거리 업는 티도 꾸며 너여 아못조록 감스도 눈에 드러 슈칭이는 혼 번 들자 서로 시귀 하고 아양피는”(pp. 473-474) 기너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그리고 玉丹春은 李血龍을 낯것 보고 그 비범함을 아는 知人之鑑이 있고, 人情味도 있을 뿐 아니라 슬기로운 女人이기도 하다.

59) cf. 金炳國, “고대소설 敘事體와 敘述觀點”, 李相澤·成賢慶 編, 前掲書. 許榕, “民衆과 古小説의 敘述者”, 「연세어문학」 16輯, 延大, 1983.

(玉丹春이 水滸 직전의 李血龍을 살리려고) 감수전에 엿조오되 소녀 금시에 오흔(惡寒)이 이러니며 만신이 고통하야 전델 슈 업느니다 하니 감수 이르는 말이 그러하면 물너가 치료하라 하거늘 육단춘이 물너나와 스공을 급피 불너 왓 …(p. 480)

또 玉丹春은 죽을 지경에서도 “이 저에 춘이는 저 죄 당홀거슨 고스하고 서방님 죽을 일 심각 하니 구상전(舊上典) 만느드시 벌벌 썰며 … (p. 499)”, “여보 스공님아 드려보오 … 나는 조결 홀 거시니 우리 랑군 살너주오(pp. 502-503)” 하는 純節의 女性이다. 작자는 玉丹春의 純情과 節義를 작품의 바탕으로 삼고 있으며 신분 상승을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작품을 면밀히 살펴 보면 金眞喜의 구체적 虛政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李血龍이 꾸짖는 내용이나 出道 직전 自嘆하는 말을 들어 보면 死生同居하자던 지난날의 맹세를 씻은듯 저버리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 한 점만을 나무라고 있다.

이 때에 어스도… 탄식하야 하는 말이 봉우유신(朋友有信) 살터업고 결의형대 살터업다 이전에 너와 나와 스싱동거하자 하고 태산갸치 미진 언약 철석갸치 뒤졌더니 살니기는 고스하고 죽이기를 일삼으니 무심하고 야속하다 오륜(五倫) 박터하고 보면 양급자손(殃及子孫) 하는니라(pp. 501-502)

金眞喜가 받은 天罰도 五倫(朋友有信)을 박대한 때문이다. 이로 보면 작자는 인간의 도리(友誼)를 강조하는 한편 善의 궁극적 승리와 신분 상승을 바라는 독자의 소망을 구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Ⅲ. 結 論

본고는 두 작품의 優劣이나 授受關係를 규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특성을 살펴 對比하려는 데 목적이 있으며 明代 話本小說 「玉堂春落難逢夫」와의 본격적 비교를 위한 선행 작업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논의한 바를 정리해 보겠다.

唐代 傳奇 중 「李娃傳」 같은 艷情類는 妓女가 등장하는 우리의 고소설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玉丹春傳」, 「王慶龍傳」, 「李春風傳」, 「春香傳」 등을 두고 볼 때, 단순히 어떤 부분이 유사하다고 해서 영향이라고 단정함은 무리이며 설화와의 관련 정도와 그 國內의 溯源을 반드시 상고해야 할 것이다.

두 작품 모두 “相逢—離別—苦難—再會—榮華”의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 일련의 과정은 전체적으로 “分離—和合”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시퀀스는 현대 소설에도 이어지고 있다.

「玉丹春傳」은 言語競合談 형식을 띠는데 玉丹春 자신이 援助者로 등장하는 데다 독자가 胎夢 등을 통해 결말을 예견할 수 있어서, 意外的 反轉이라는 언어경합담으로서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妓女가 등장하는 우리의 고소설에서는 대개 여성의 知人之鑑에 의해 남성을 선택하고 있다. 그런데 玉丹春이 李血龍을 만나 그를 구해 주는 것은 知人之鑑과 아울러 李血龍의 처지를 불쌍히 여긴 人情味에 의한 것이다. 李娃의 만남은 玉丹春에 비해 피동적이지만 선택과 투자의 주체가 여성이며 이들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우리의 경우 여성 우위의 소설은 조선조 후기에야 나타난다.

「李娃傳」의 주변적 인물은 비교적 성격이 뚜렷한 데 비해 「玉丹春傳」에서는 이들이 별로 드러나지 않으며 생동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주변적 인물의 성격이 약한 것은, 주제를 향한 集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야기의 효과적 전개라는 점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唐代 艷情類에 기녀가 등장하는 작품이 많은 것은, 당시의 경제적 好況과 이에 따라 林立했던 妓館 그리고 唐代 文人, 특히 進士는 倡妓와 宴遊했던 당시의 풍속과 깊은 관련이 있다. 唐代는 家妓, 民妓(私妓)가 많았고 우리는 官妓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자연히 작품 전개에 큰 차이가 생긴다. 즉, 前者에서는 애정 성취의 장애물이 재물이나 인간성임에 비해 우리는 대개 官權(울런 官長)이며 따라서 중심 갈등도 달라지게 된다. 작중 인물과 중심 갈등을 통해 검토한 바 妓女의 悔心과 獻身을 보인 「李娃傳」의 주제는 인간성의 회복이며 妓女의 知人之鑑과 純情을 金眞喜의 行爲와 對比시킨 「玉丹春傳」의 주제는 인간의 도리, 구체적으로는 友誼임을 알 수 있었다.

작품의 주제는 작가 의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李娃의 헌신적 행동이나 生의 급제 후 물러나려 한 李娃의 말, 작품 말미의 작자의 評語 등을 보아도 「李娃傳」은 贖罪 이상의 높은 인간성의 高揚을 말하고 있다. 唐代의 一般 賤民과 士族은 혼인을 논할 수 없었고 名門家와의 혼인은 선망의 대상이었으며 부모의 허락이 없는 혼인은 상상할 수조차 없었다. 李娃는, 往往 영웅이 대신 취해 주는 지위를 스스로 획득한, 즉 신분 상승을 스스로 이룬 여성이다. 그런데 자유 결혼, 계급 타파(신분 상승), 여권신장 등은 이 작품이 널리 읽힌 요인이기는 해도 「李娃傳」의 주제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태여 이름한다면 주제의 하위 개념, 작품의 基本思想 또는 創作動因이라 하겠다. 「玉丹春傳」에서 작자는 二元的 논리에 의해 어느 한편에서 서서 서술자로 개입하고 있다. 이 작품은 妓女의 純情과 신분 상승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李血龍은 출도 후 金眞喜의 虐政이 아닌 信義를 저버린 점을 꾸짖고 있다. 작자는 金眞喜가 天罰을 받도록 하여 善의 궁극적 승리와 신분 상승이라는 독자의 의식을 구현하고 있기도 하지만, 주제는 인간의 도리(友誼)라 하겠다.

「玉丹春傳」이 「春香傳」을 모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은, 모방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李血龍과 金眞喜의 갈등에 玉丹春이 삽화처럼 들어 갔으며 玉丹春과 金眞喜와의 직접적 갈등이 없기 때문에 받은 인상이다. 두 작품은 창작 의도나 주제가 서로 다른 작품으로, 모방 여부도 再考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그 國內的 遡源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玉丹春傳」은 오히려 「李血龍傳」에 가깝다 하겠다.

參 考 文 獻

- 「九雲夢」(完板本, 서울대圖書館藏本)
- 東國大 韓國學研究所 編, 「活字本 古典小說全集」卷四, 亞細亞文化社, 1976.
- 「東國輿地勝覽」
- 朴斗世, 「要路院夜話記」(延大本)
- 李昉 編, 「太平廣記」(啓明文化社 影印, 1982)
- 金起東, 「李朝時代小說論」, 精研社, 1959.
- , 「韓國小說發達史 中」, 高大民族文化研究所 編, 「韓國文化史大系 10」, 1967.
- 金東旭, 「韓國文學의 基底」, 「東方學志」10輯, 延大, 1969.
- 校注, 「短篇小說選」, 民衆書館, 1976.
- 金炳國, 「고대소설 敘事體와 敘述觀點」, 李相澤·成賢慶 編,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社, 1983.
- 金一烈, 「古典小說의 民謡化—淑英娘子傳과 玉丹春謠를 대상으로—」, 「語文論叢」16號, 慶北大, 1982.
- 金台俊, 「增補 朝鮮小說史」, 學藝社, 1939.
- 金學主, 「中國文學概論」, 新雅社, 1977.
- 金鉉龍, 「韓中小說說話比較研究」, 一志社, 1976.
- 朴敏一, 「古代小說에 나타난 女人像攷」, 「語文論叢」13輯, 高大, 1973.
- 朴恩實, 「韓國 說話에서의 援助者 研究」, 碩士學位論文, 梨大大學院, 1986.
- 徐大錫, 「古典小說의 <辛福한 結末>과 韓國人의 意識」, 「冠岳語文研究」3輯, 서울대, 1978.
- 蘇在英, 「古小說通論」, 二友出版社, 1983.
- 윤영미, 「<배따라기>의 構造的 分析과 技法에 나타난 文學性」, 「西江」11號, 西江大, 1981.
- 李佑成·林燮澤 譯編, 「李朝漢文短篇集」上·中·下, 一湖閣, 1973~1978.
- 李在秀, 「韓國小說研究」, 螢雪出版社, 1973.
- 任東權 編, 「韓國民謡集」I~III, 集文堂, 1961~1965.
- 張基樞, 「傳奇小說과 그 成長—說話文學의 展開과 小說로서의 完成—」, 「서울대 論文集(人文·社會系)」9輯, 1959.
- 丁來東, 「春香傳에 影響을 미친 中國의 作品들—西廂記, 玉堂春 等—」, 「大東文化研究」1輯, 成大, 1963.

- 丁範鎮, “白行簡其人其小說—李娃傳에서 玉丹春傳까지—”, 「成大論文集(人文·社會系)」13輯, 1968.
- 譯, 「唐代傳奇小說選」, 汎學圖書, 1975.
- 鄭夏英, “「沈清傳」의 主題考”, 李相澤·成賢慶 編, 「韓國古典小說研究」, 새문社, 1983.
- 趙憲, “古代小說 속의 女人型”, 「文湖」創刊號, 建大, 1960.
- 崔雲植, “玉丹春傳”小考”, 「國際大論文集(人文·社會系)」6輯, 1978.
- 許世旭, 「中國古代文學史」, 法文社, 1986.
- 許椿, “民譚과 古小說의 敘述者”, 「연세어문학」16輯, 延大, 1983.
- , “古小說의 人物 研究 — 仲裁者를 中心으로 —”, 博士學位論文, 延大大學院, 1986.
- 魯迅 著, 丁來東·丁範鎮 共譯, 「中國小說史略」, 錦文社, 1964.
- 孟瑤, 「中國小說史」, 臺北, 傳記文學出版社, 1977.
- 楊家駱 編, 「中國學術類編」, 臺北, 鼎文書局, 1977.
- 劉紹銘 作, 余素 譯, “唐人小說中的愛情與友情”, 痙弦·廖玉蕙 編, 「中國古典小說論集」第一輯, 臺北, 幼獅文化公司其刊部, 1977.
- 陳東原, 「中國婦女生活史」, 臺北, 商務印書館, 1967.
- 馮明惠, “唐傳奇中愛情故事之剖析”, 痙弦·廖玉蕙 編, 「中國古典小說論集」第一輯, 臺北, 幼獅文化公司其刊部, 1977.
- 胡雲翼 著, 張基樞 譯, 「中國文學史」, 大韓教科書株式會社, 1972.
- 華正書局 編輯部, 「校訂本 中國文學發展史」, 臺北, 華正書局, 1977.
- 近藤春雄, 「唐代小說の研究」, 東京, 笠筒書院, 1978.
- Bausinger, Herman, “Bemerkungen zum Schwank und seinen Formentypen”, *Fabula*, Berlin, 1967, I/1-3.
- Eckert, C. W., “Initiatory Motifs in the Story of Telemachus”, *Myth & Literature*, ed. by J. B. Vickery, Univ. of Nebraska Press, 1966.
- Grimms, *Die Kinder und Hausmärchen*, 金昌活 譯, 「獨逸民譚說話集」, 乙西文化社, 1975.
- Marcus, Mordecai, “What is an Initiation Story?”, *Critical Approach to Fiction*, ed. by Shiv K. Kumar, Keith Mckean McGraw-Hill Company, N. Y., 1968.

Summary

A Study of *Okdanchoonchon*(玉丹春傳)

—With Comparison to *Iwachon*(李娃傳)

Heo Chun

This study has the character of prelude to the full-dress comparative study of the novels during the Ming(明) Dynasty, *Okdangchoonragranbongboo* (玉堂春落難逢夫) and *Okdangchoon* (玉堂春), a dramatic miscellany. Thus, the two novels, *Iwachon* and *Okdanchoonchon*, are contrastively discussed in this study, with special focus on the plot, character, theme, the writer's consciousness, of these two novels. these are arranged as follows :

Both the two novels follow the processes of 'meeting, farewell, penance, reunion and glory.' These can be summarized as 'division' and 'union.'

Okdanchoonchon takes on a form of a variety of puns(a kind of 'word play'), the merits of which are not fully taken advantage of. And this led to the loss of half of their effects. In *Okdanchoonchon*, the choice of a man by a woman is based on the wisdom to acknowledge a person as well as his humanity.

The 'meeting' expressed in the novel of *Iwachon* is more passive than in *Okdanchoonchon*, but these two novels are the same in that a woman is the subject of choice and investment. During the Tang(唐) Age there are many 'Kagis'(家妓) (a kisaeng belonging to a distinguished family; kisaeng means a 'professional entertainer') and 'Mingis'(民妓) (a kisaeng not belonging to a particular person), whereas we had many 'Kwangis'(官妓) (a kisaeng belonging to a government office), which naturally made the difference of the progression of a story in a novel. In *Iwachon*, the obstacle to the achievement of affection is possessions or humanity, while in our case it is usually the government authority, which makes the main conflict different. Speaking of the theme on a novel, the novel *Iwachon* deals with the pure-minded feeling of a 'kinyo'(called also a kisaeng) through the recovery of humanity, whereas *Okdanchoonchon* puts emphasis on the friendship of a human species. This difference is fully revealed even seen through the writer's consciousness.

The reason why *Okdanchoonchon* is looked upon as not a successful imitation of *Choonhyangchon* (春香傳) is that *Okdanchoon*(玉丹春) has been inserted like an illustration in the conflict between Lee Hyol-ryong(李血龍) and Kim Chin-hee(金眞喜), and that there is not any direct conflict between *Okdanchoon* and a 'sato' (means 'lord'). However, it must be reconsidered to assert definitely that the writer had the intention of imitating other literary work.